



베이징올림픽 D-72



광주소년체전 D-3

-광주·전남 전력 분석

폭스바겐 코리아오픈 탁구

내일부터 대전서 열전 4일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지진·여진 등 잇단 재앙에 올림픽 들뜬 분위기 '폭삭'

쓰촨(四川)성 대지진에 파문된 건 8만여 명의 무고한 인명 만은 아니다. 불과 70여 일 앞둔 베이징 올림픽도 지진 속에 흔들리고 말았다.

쓰촨 대지진이 중국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것 만은 분명하다. 티베트(시짱·西藏) 사태를 놓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집중됐지만 지진에서 보여준 감동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의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여진은 올림픽을 질색케 하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수 천 차례의 여진이 났었다. 특히 지난 25일 오후 발생한 리허터 규모 6.4의 강진으로 쓰촨·간수(甘肅)·칭하이(青海)·충칭(重慶) 등 4개 지역에서 가옥 7만여 채가 무너지면서 8명이 죽고 927명이 다쳤다.

여기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쓰촨성 내 34개 연색호(堰塞湖-산사태로 생긴 자연 호수)와 70여 개의 노후 댐도 위협해졌다. 만일 이들 연색호와 댐이 붕괴될 경우 핵폭탄 수백 개가 터지는 것과 맞먹는 물 피해를 입게 된다. 끔찍한 2차 재앙인 셈이다.

이 때문에 언론들은 온통 지진에만 매달리고 있다. 올림픽 관련 뉴스는 거의 실종됐다. 중앙방송(CCTV)은 올림픽 특별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모든 채널을 지진보도 체제로 전환했다. 신랑(新浪), 소후(搜狐), 대지진의 악몽은 올림픽 잔치 분위기를 송두리째 앗아갔



다. 27일 한 주민이 쓰촨성 멘주현의 무너진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뒀고 있는 학생들의 학용품 더미에서 양언자실해 대형 포털 및 온라인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들은 온통 지진에만 매달리고 있다. 올림픽 관련 뉴스는 거의 실종됐다.

중양방송(CCTV)은 올림픽 특별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모든 채널을 지진보도 체제로 전환했다. 신랑(新浪), 소후(搜狐), 대지진의 악몽은 올림픽 잔치 분위기를 송두리째 앗아갔

다. 27일 한 주민이 쓰촨성 멘주현의 무너진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뒀고 있는 학생들의 학용품 더미에서 양언자실해 대형 포털 및 온라인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들은 온통 지진에만 매달리고 있다. 올림픽 관련 뉴스는 거의 실종됐다.

중양방송(CCTV)은 올림픽 특별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모든 채널을 지진보도 체제로 전환했다. 신랑(新浪), 소후(搜狐), 대지진의 악몽은 올림픽 잔치 분위기를 송두리째 앗아갔

다. 27일 한 주민이 쓰촨성 멘주현의 무너진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뒀고 있는 학생들의 학용품 더미에서 양언자실해 대형 포털 및 온라인 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제 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광주시 선수단이 27일 오전 영주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 양궁·체조 등 '메달밭'...3위 목표 전남 기록경기·초등부 강세 7위 도전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육상, 태권도, 펜싱, 수영 등 32개 종목에 1만 6천81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는 개최지 이점과 메달밭인 레슬링과 양궁의 선전이 기대돼 종합순위 3위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전남은 기록경기와 초등부 강세로 전년보다 금메달 5개 이상을 더 획득해 한자리수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

광주는 사이클, 카누, 요트 등 3개 종목을 제외한 29개 종목에 1천25명(선수 734명, 임원 291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지난해 강화 서울·경기의 독주와 개최지 이점을 안은 경북의 전력향상의 틈을 비집고 4위의 성적을 거둔 광주는 올해 개최지 이점을 이용, 종합 3위를 목표로 정했다.

광주는 약세종목이던 육상과 수영에서 전력향상이 기대되고 전통 강세 종목인 레슬링과 양궁, 체조에서 금맥을 쫓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경서(양산초등학교) 군은 체조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할 기대주로 꼽히고 있으며 강구범(체육중학교)·김도영(여·체육중학교)·한솔(여·체육중학교)

도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보여 출전선수 4명 모두가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김지현(광주체육중)이 수영 배영 50·100m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믿고 있으며 지평초등학교 여초배구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금메달을 때론당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레슬링에서 금 5개, 양궁 금 3개 등 전통적인 강세종목의 선전으로 종합 3위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축구 여초 하남중앙초교, 정구 여중 신광중학교 등 단체종목에서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다.

전남

전남은 32종목 모두에 1천162명(선수 817명, 임원 345명)이 참가한다. 종합 7위

에 올라 지난해 12위에서 5계단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은 목표 중앙여중 하키와 무선종요트, 유도, 복싱 등 단체 2팀, 개인대진 3체급이 부진상에 올랐고, 기록경기과 초등학교부의 경기력 향상으로 금메달 22개 이상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육상에서 금 5, 은 6, 동 9개를 기대하고 있으며 역도에서 금메달 6개를 따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육상에서 김대성(목포서부초)이 멀리뛰기, 박소희(제철초) 멀리뛰기, 문기호(여선중) 400m, 이은주(체육중)세단뛰기, 남초 선발이 400m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기대하고 있는 역도는 이한승(보성중)이 94kg인상·웅상 합계에서 3관왕을 기대하고 있으며 최다혜(보성여중)도 53kg에서 웅상과 합계 2관왕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권도 고혁재(순천북초)와 조우주(체육중)도 무난히 금빛 발차기를 성공시킬 것으로 보인다.

단체종목에서는 광양제철 남초등 축구와 정구 초등 남여초등 선발, 배구 탐양동초가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男 프로배구 대한항공 새 감독에 진준택씨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점보스가 처음으로 비(非)인하대 출신 감독을 영입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문용관 감독의 후임으로 진준택(59) 고려증권 전 감독과 계약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 감독의 연봉에 대해서는 "문 전 감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계약기간은 2년.

진 감독은 명지대를 나와 1990년대 실업배구 슈퍼리그 시절 고려증권을 4번이나 우승시킨 명장이다. 최근에는 한중대 교수 겸 배구팀 감독을 맡아왔다. 대한항공 측은 "1986년 배구단 창단 이래 인하대 출신이 출근 감독을 맡아왔다. 타고 출신 감독을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28일(수)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라쿠텐>(17 : 50·SBS스포츠)

▲2008 삼성퍼블 프로야구<두산 : LG>(18 : 00·KBS N SPORTS)<삼성 : 우리>(18 : 20·X-SPORTS)<기아 : SK>(MBC ESPN)<한화 : 롯데>(18 : 30·SBS스포츠)

29일(목)

▲국가대표 친선축구<잉글랜드 : 미국>(04 : 00·MBC ESPN)

▲07/08 NBA 동부컨퍼런스 결승 5차전 <보스턴 : 디트로이트>(09 : 30·MBC ESPN)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돈가네&감비왕국
복구 양산동 광주은행 인신출장소근처
대표 이용
☎(062)574-6809

노을길(도산점)
광산구 도산동 구파림예식장 맞은편
대표 김영자
☎(062)941-2345

느티나무
동구 소태동 중심사입구 베고프다리 옆
대표 김영자
☎(062)224-0803

우리모밀
복구 양산동 운암신일교회앞
대표 이영미
☎(062)511-1866

세주수학전문학원
회정동 영주사거리 광주은행맞은편
대표 성종관
☎(062)385-0069

대관령양푼이 동태찌개·찜
순천시 금당 조례동 순천 제일병원앞
대표 한두금
☎(061)725-6210

국제광택전문샵
평동 행정영에서 신안교가까이센타거리점
대표 최창섭
☎(062)655-9690

승리태권도
광산구 양산동 주공단지 정문옆 한파학원옆
대표 장춘길
☎(062)952-0501

유학허브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와 금남로방향
대표 이봉진
☎(062)263-3434

신명의자
동구 학동 학동사무소앞 일방도로
대표 선정인
☎(062)234-8980

싸리골명석왕갈비
복구 양산동 안다교육교회앞
대표 박기홍
☎(062)571-0977

부어치킨
복구 양산동 현지아비빌앞
대표 성종관
☎(062)576-3339

승광정(해물코다리)
순천시 장천동 프리머스극장옆 골목
대표 한두금
☎(061)743-0696

천지인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옆
대표 최창섭
☎(011)640-6689

꽃돼지
서구 쌍촌동 5.18학생회관 맞은편
대표 이봉진
☎(062)384-9293

노을길(화정점)
서구 화정동 마래도가병원 마트옆골목
대표 이봉진
☎(062)362-3456

여민락
동구 운림동 중심사입구
대표 선정인
☎(062)236-0337

한국주방
복구 양산동 신흥택시옆
대표 박기홍
☎(062)431-8040

노바전자
광산구 도천동 해남공단옆도로 주유소옆
대표 마천석
☎(062)954-9974~5

영웅상사
복구 중흥동 한국정보통신옆
대표 박지원
☎(062)369-0787

(주)돈가원
복구 양산동 안다교 교회옆
대표 박지원
☎(062)524-0207

푸른건강원
복구 풍향동 광주대편 E마트건너편
대표 조안영
☎(062)512-2752

J조안성형외과
동구 금남로3가 카톨릭센터2층
대표 조안영
☎(062)225-0118~9

생태야 생태야
복구 양산동 삼호@정문앞
대표 박승규
☎(062)511-0227

용두보양탕
복구 용두동 일신@102동앞
대표 박기홍
☎(062)417-6933

달구지
서구 영주동 영주거리광주은행뒤막지골목
대표 박기홍
☎(062)381-2443